



# 여대생의 음주형태, 음주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유형, 스트레스 증상에 관한 연구

양 승 희<sup>1)</sup> · 한 금 선<sup>2)</sup>

## 서 론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음주로 인한 학습 능력의 저하, 경제적 손실, 폭력 사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 대인 관계 문제, 및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2000). 대학생의 음주 문제는 발달 단계 상 사춘기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해 생기는 변환적 스트레스의 경험, 동료 집단의 압력, 자아 정체감 혼란, 정서적 스트레스, 낮은 자아존중감, 알콜올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된 지식 및 가족의 알콜 남용력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Han & Han, 2001).

우리나라의 경우 알콜 중독은 성인의 22%로 미국이나 독일에 비하여 약 2배가 높고, 대만에 비하여 3배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어 알콜 남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저연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직면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Han & Han, 2001).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대의 95%가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성인 음주자의 67%가 20세 이전부터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음주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폭음율도 20대가 24.3%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높았고, 10대 음주자의 약 6%가 알콜 중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Kim, 2001), 매 학기마다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높은 음주율과 음주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음주 및 음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여성 음주자의 경우도 최근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여성 의식의 변화,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규범의 변화에 따라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실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음주율이 55%로 보고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2002). 즉, 여성 음주 인구가 증가되어 최근에는 여성들의 음주가 비교적 일반화되었으며, 특히 젊은 여성, 여대생의 음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음주 형태의 특성은 남성에 비해 술로 인한 간 파괴 속도가 빠르며, 음주 시작 연령이 늦고, 남성에 비해 술 마시는 빈도와 양이 적으며,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음주 시작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으며, 같은 음주량에도 남성보다 신체적 피해가 더욱 크다. 또한 여성 음주자는 여성의 독특한 성역할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성 음주자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의 특성은 어려움 없이 술을 구입할 수 있고, 취중에 한 행동은 쉽게 허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 음주를 대인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생각하는 경향, 알콜올 중독이나 과음에 대한 수용도가 대체로 높은 것들을 들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음주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주요어 :** 음주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행위, 스트레스 증상, 여대생

1) 동우대학 간호과, 조교수, 2)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투고일: 2003년 6월 24일 심사완료일: 2003년 12월 6일

따라 알콜 중독자가 많이 발생하고, 성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 자살, 교통사고, 가정 문제, 신체, 정신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Ahn, Pai & Kim, 1999; Korea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 2002).

이와 더불어 대학생의 음주 문제는 성격 발달과정에서 심한 정서적 갈등, 소외감,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직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있다(Han & Han, 2001; Park, 2000; Lee, Lee & Jeong, 1999). 다양하고 급격한 환경의 변화 및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 기전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이 일차적인 대처 기전으로 이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음주를 이용하는 경우는 알콜 중독에 대한 고위험 집단일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음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았고, 특히 여성인 경우 그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 Lee, 1997).

음주와 관련된 스트레스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인지 장애, 적대감 등의 정서적인 증상과 소화기계 문제, 순환기계 문제 등의 신체적 증상 및 사회적, 직업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적응 문제 등이 보고되고 있다(Kim & Kim, 2001; Huh, Kim & Kim 2001). 또한 스트레스 생활 사건 자체 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평가 및 지각 정도가 대처 행위와 스트레스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Han, 1996; Lee & Han, 1999).

그동안 음주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보고 되었으나 주로 남성 위주, 간질환자, 알콜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성 음주자에 대해서는 음주 양태에 대한 조사연구나 단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었으나 음주 양상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 대처 행위 등의 인지 지각적인 변수와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형태, 음주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행위 및 스트레스 증상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미래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 목적

- 여대생의 음주 형태, 음주 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유형, 스트레스 증상 정도를 확인한다.
- 여대생의 음주 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유형,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용어의 정의

### • 음주관련 문제

음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Kim 등(1991)이 개발한 NAST(National Alcoholics Screen Test)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 스트레스 지각

생활 사건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Reiser, 1984)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인지한 최근 1주간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 • 대처 유형

개인의 자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한 내/외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 행위적 노력을 의미하며(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 스트레스 증상

스트레스 인자에 대하여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대처 자원을 초과하여 일어나는 정서적, 행동적, 생리적 적응의 지연된 결과, 즉, 자가 조절의 장애로 나타난 반응의 복합체를 말하며(Kogan, 1988), 본 연구에서는 Kogan(1988)이 개발한 Symptoms of Stress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 형태, 음주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행위, 스트레스 증상 정도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나 잘못된 질문지와 누락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총 4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일 간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협조를 구한 뒤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다.

## 연구 도구

### ● 음주 형태

음주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문헌 고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음주여부, 빈도, 종류, 젊은 여성의 음주에 대한 견해, 음주 동기, 음주로 생긴 문제, 최초 음주 경험, 과음 경험, 음주량, 알코올의 영향에 대한 견해 등을 포함한 총 13문항을 조사하였다.

### ● 음주관련 문제

음주 관련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Kim 등(1991)이 개발한 NAS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다. 12개 문항에서 합이 4이상인 경우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상태로 분류된다. 본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9로 나타났다.

### ● 스트레스 지각

Levenstein 등(1993)이 개발한 30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90으로 나타났다.

### ● 대처 유형

대처 유형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6문항, 4점 척도로 문제 중심적 대처 21문항과 정서 중심적 대처 23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 6문항, 소망적 사고 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 유형과 정서 중심적 대처 유형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89로 나타났다.

### ● 스트레스 증상

Kogan(1988)이 개발한 Symptoms of Stress Scale 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1개의 하위 척도인 스트레스 증상 군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총 항목 수는 105개이다. 말초 혈관 증상 7문항, 심폐 각성 증상 6문항, 상기도 증상 9문항, 중추신경계 증상 5문항, 위장관계 증상 9문항, 근육 긴장 증상 9문항, 습관적 행동 형태 증상 15문항, 우울 증상 8문항, 불안 증상 11문항, 정서적 분노 8문항, 인식력 장애 8 문항, 여성 관련 증상 10문항 등의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91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각 변수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의 인구학적,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연령은 22세-23세가 42.43 %로 가장 많았고, 20-21세가 36.01%, 24세 이상이 16.97% 순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233명(53.44%)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106명(24.31%), 1학년이 97명(22.25%)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167명(38.91%) 였고, 종교가 있는 경우 기독교가 137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36

| Characteristics               | Category             | n   | %     |
|-------------------------------|----------------------|-----|-------|
| Age                           | below 20 years       | 20  | 4.59  |
|                               | 20-21 years          | 157 | 36.01 |
|                               | 22-23 years          | 185 | 42.43 |
|                               | above 24 years       | 74  | 16.97 |
| Grade                         | Junior               | 97  | 22.25 |
|                               | Sophomore            | 106 | 24.31 |
|                               | Senior               | 233 | 53.44 |
| Religion                      | Christian            | 137 | 31.42 |
|                               | Catholic             | 37  | 8.49  |
|                               | Buddhism             | 95  | 21.79 |
|                               | None                 | 167 | 38.31 |
| Entrance motive               | Employment view      | 248 | 56.88 |
|                               | Aptitude             | 85  | 19.50 |
|                               | Advice from others   | 63  | 14.45 |
|                               | Spirit of service    | 9   | 2.06  |
|                               | Continuous education | 31  | 7.11  |
| Satisfaction for major        | Very satisfied       | 271 | 62.16 |
|                               | Moderately satisfied | 155 | 35.55 |
|                               | Very Dissatisfied    | 10  | 2.29  |
| Satisfaction for College life | Very satisfied       | 155 | 35.55 |
|                               | Moderately satisfied | 251 | 57.57 |
|                               | Very Dissatisfied    | 30  | 6.88  |
| Perceived health              | Good                 | 187 | 42.89 |
|                               | Average              | 215 | 49.31 |
|                               | Bad                  | 34  | 7.80  |
| Problem Drinking              | Yes(above 4 point)   | 26  | 3.44  |
|                               | No                   | 410 | 96.56 |

(31.42%), 불교가 95명(21.79%), 천주교가 137명(8.49%) 순이었다. 간호학과의 입학 동기는 '취업에 대한 전망'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8명(56.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적성에 맞아서'가 85명(19.5%), '타인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63명(14.45%) 순이었다. 현재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가 271명(62.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다'가 155명(35.55%), '매우 불만족한다'가 30명(6.88%)였다. 현재 지각된 건강 상태는 '보통이다'가 215명(49.31%)으로 가장 많았고,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87명(42.89%),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4명(7.80%)였다. 현재 문제 음주자로 나타난 경우는 26명(3.44%)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음주 형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의 403명(92.43%)이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여대생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빈도는 한달에 1-2회 이하로 마시는 경우가 253명(58.03%)으로 가장 많았고, 한달에 3-4회 이하로 마시는 경우가 102명(23.39%) 순이었다. 일주일에 1-2회 마시는 경우가 12명(2.75%),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도 1명(0.23%)이었다. 마시는 술의 유형은 중복 응답 결과 소주가 292명(66.96%), 맥주가 273명(62.61%)으로 대부분이었다. 젊은 여성의 음주에 대한 인식은 354명(81.19%)의 대부분의 학생이 '가끔 마시는 것은 괜찮다'로 응답하였다. 음주 동기는 '편안해 지기 위하여'가 139명(31.88%)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우'가 115명(26.37%), '대인관계에서의 친목도모'가 91명(20.87%) 순이었다.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는 '결석이나 수업 참여도가 떨어짐'이 184명(42.20%)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108명(24.77%) 순이었다. 최초 음주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가 198명(45.41%), 중학교 재학 당시가 128명(29.36%)으로 대부분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처음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 동기는 호기심 때문인 경우가 229명(52.52%), 타인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207명(47.48%) 이었고, 처음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 장소는 '자신이나 친구의 생일 파티 장소'가 144명(33.03%), '수학여행'에서인 경우가 104명(23.85%), '축하 모임'이 100명(22.94%) 순이었다. 과음을 한 경험에 대해서는 과음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279명(63.99%)이었고, 10번 음주 중 1-2번 과음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4명(26.15%), 그 이상이 경우가 33명(9.87%)으로 총 36.02%가 과음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량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212명(48.62%)으로 가장 많았고,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91명(20.87%),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53명(12.16%)으로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당량의 음주는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27명

<Table 2> Drinking patterns of the subjects n=436

| Characteristics                              | Category                              | n   | %     |
|--|---------------------------------------|-----|-------|
| Drinking                                     | yes                                   | 403 | 92.43 |
|  | no                                    | 33  | 7.57  |
| Frequency of Drinking                        | several times / year                  | 68  | 15.60 |
|  | above 3-4 times / month               | 102 | 23.39 |
|  | below 1-2 times / month               | 253 | 58.03 |
|  | 1-2 times / week                      | 12  | 2.75  |
|  | almost everyday                       | 1   | 0.23  |
| Type of Alcoholic beverage (multiple answer) | beer                                  | 273 | 62.61 |
|  | soju                                  | 292 | 66.97 |
|  | wine                                  | 11  | 2.52  |
|  | makkoli                               | 17  | 3.90  |
|  | whisky                                | 26  | 5.96  |
| Opinion to drinking of young women           | very bad                              | 9   | 2.06  |
|  | bad                                   | 38  | 8.72  |
|  | good                                  | 354 | 81.19 |
|  | very good                             | 35  | 8.03  |
| Drinking motive                              | for reduce burden of studies          | 115 | 26.37 |
|  | for comfort                           | 139 | 31.88 |
|  | forget frustration                    | 58  | 13.30 |
|  | reduce anxiety                        | 33  | 7.57  |
|  |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 91  | 20.87 |
| Problem related to drink                     | physical injuries to others           | 65  | 14.91 |
|  | quarrel or damage a furniture         | 13  | 2.98  |
|  | unpleasant action to others           | 108 | 24.77 |
|  | absence                               | 184 | 42.20 |
|  | problem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 39  | 8.94  |
|  | drunken accident                      | 27  | 6.19  |
| First drink time                             | elementary school                     | 17  | 3.90  |
|  | middle school                         | 128 | 29.36 |
|  | high school                           | 198 | 45.41 |
|  | undergraduate school                  | 93  | 21.33 |
| Motive for first drinking experience         | inducement of others                  | 207 | 47.48 |
|  | From curiosity                        | 229 | 52.52 |
| Placement of the first drinking time         | birthday party                        | 144 | 33.03 |
|  | school excursion                      | 104 | 23.85 |
|  | celebration party                     | 100 | 22.94 |
|  | family event party                    | 88  | 20.18 |
| Excessive drinking experience                | never                                 | 279 | 63.99 |
|  | 1-2 times / 10 times                  | 114 | 26.15 |
|  | 3-4 times / 10 times                  | 21  | 4.82  |
|  | 5 times / 10 times                    | 22  | 5.05  |
| Self perception to drinking amount           | excessive                             | 53  | 12.16 |
|  | moderate                              | 212 | 48.62 |
|  | a little                              | 91  | 20.87 |
|  | very little                           | 80  | 18.35 |
| Opinion to influences from alcohol           | harmful in human body                 | 29  | 6.65  |
|  | although little amount                |     |       |
|  | harmful in human body                 | 173 | 39.68 |
|  | which degree over amount              |     |       |
|  | helpful in health when proper amount  | 227 | 52.06 |
|  | the others                            | 7   | 1.61  |

(52.06%)으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알콜은 인체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73명(39.68%), 소량이라도 인체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9명(6.65%)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음주 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행위, 스트레스 증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음주 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행위, 스트레스 증상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3>. 음주와 관련된 문제는 총 12개 항목 중 4개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26명(3.44%), 3개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한 경우는 38명(8.72%)로 나타났다. 특히 '취기가 오르면 계속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다'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4명(23.85%)으로 12개의 문제 음주 항목 중 가장 많은 수가 대답하였고, '최근에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에 64명(14.68%)이 해당되고, '대인관계나 사회 생활에 술이 해로웠다고 느낀다'는 항목이 62명(14.22%) 순이었다. 가장 적게 수가 해당되는 문제는 '술로 인해 보호자가 나를 떠났다고 느낀다'라는 항목이 3명(0.69%)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술이 깨면서 공포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경험, 혹은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는 항목이 5명(1.15%)이었다.

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평균 2.49(범위 1-4)로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정도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대처 유형은 문제 해결 중심의 대처 행위 사용정도가 평균 1.48(범위 0-3), 정서 중심 대처 행위가 평균 1.29(범위 0-3)로 나타났다.

<Table 3> Problem-related drinking,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symptoms of stress n=436

| Variables                 | Mean | SD  | Range |
|---------------------------|------|-----|-------|
| Problem-related drinking  | 0.08 | .12 | 0-1   |
| Perceived Stress          | 2.49 | .42 | 1-4   |
| Ways of Coping            |      |     |       |
| Problem-oriented          | 1.48 | .40 | 0-3   |
| Emotion-oriented          | 1.29 | .33 |       |
| Symptom of stress         | 1.34 | .58 | 0-4   |
| Peripheral                | 1.27 | .69 |       |
| Cardio/Arousal            | 1.28 | .81 |       |
| Upper respiratory         | 1.10 | .69 |       |
| Neural                    | 1.25 | .78 |       |
| Gastro-Intestinal         | 1.52 | .75 |       |
| Muscle Tension            | 1.37 | .84 |       |
| Habit pattern             | 1.15 | .63 |       |
| Depression                | 1.46 | .81 |       |
| Anxiety                   | 1.26 | .70 |       |
| Emotional irritability    | 1.57 | .86 |       |
| Cognitive Disorganization | 1.54 | .74 |       |
| Premenstrual Symptom      | 1.37 | .90 |       |

스트레스 증상 정도는 평균 1.34(범위 0-4)로 나타나 중간 보다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불안정 증상이 평균 1.57로 가장 높았고, 인지적 혼란 증상이 1.54, 소화기계 증상이 1.52 순이었다.

### 음주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행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대상자의 음주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행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여대생의 음주 관련 문제와 스트레스 지각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 관계( $r=.10$ ,  $p=.031$ )를 보여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문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관련 문제와 대처 유형간의 관계에서는 음주 관련 문제와 문제 중심대처 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서 중심 대처( $r=.13$ ,  $p=.006$ )와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주 관련 문제와 스트레스 증상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 관계( $r=.23$ ,  $p=.031$ )를 보여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

<Table 4> Correlation among problem related drinking,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symptoms of stress n=436

| Variables | X1 r(P)    | X2 r(P)    | X3 r(P)    | X4 r(P)    |
|-----------|------------|------------|------------|------------|
| X2        | .10 (.031) |            |            |            |
| X3        | .04 (.303) | .07 (.126) |            |            |
| X4        | .13 (.006) | .24 (.000) | .18 (.000) |            |
| X5        | .23 (.000) | .60 (.000) | .58 (.000) | .32 (.000) |
| X5-1      | .15 (.001) | .39 (.000) | .07 (.103) | .18 (.000) |
| X5-2      | .10 (.027) | .37 (.000) | .11 (.014) | .17 (.000) |
| X5-3      | .12 (.011) | .33 (.000) | .16 (.000) | .25 (.000) |
| X5-4      | .16 (.000) | .37 (.000) | .17 (.000) | .26 (.000) |
| X5-5      | .18 (.000) | .40 (.000) | .18 (.000) | .26 (.000) |
| X5-6      | .22 (.000) | .40 (.000) | .21 (.000) | .26 (.000) |
| X5-7      | .25 (.000) | .47 (.000) | .11 (.000) | .30 (.000) |
| X5-8      | .18 (.000) | .66 (.000) | .04 (.379) | .18 (.000) |
| X5-9      | .17 (.000) | .56 (.000) | .14 (.000) | .25 (.000) |
| X5-10     | .23 (.000) | .53 (.000) | .17 (.000) | .31 (.000) |
| X5-11     | .20 (.000) | .53 (.000) | .14 (.000) | .28 (.000) |
| X5-12     | .14 (.000) | .29 (.000) | .18 (.000) | .25 (.000) |

X1 Problem related to drinking

X2 Perceived Stress

X3 Problem oriented coping

X4 Emotion oriented coping

X5 Symptom of stress

X5-1 Cardio/Arousal

X5-2 Neural

X5-3 Muscle Tension

X5-4 Depression

X5-5 Anxiety

X5-6 Emotional irritability

X5-7 Cognitive Disorganization

X5-8 Premenstrual Symptom

X5-9 Peripheral

X5-10 Upper respiratory

X5-11 Gastro-Intestinal

X5-12 Habit pattern

트레스 증상의 12개 하위 유형과 음주관련 문제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습관성 행동 증상과 음주 관련 문제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 $r=.25, p=.000$ )를 나타내었고, 정서적 불안정( $r=.23, p=.000$ )이 그 다음 순이었다.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 유형 간에는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문제 중심 대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지각과 정서 중심 대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 관계( $r=.24, p=.000$ )를 보여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 중심 대처 행위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스트레스 증상간에 유의한 순상관 관계( $r=.60, p=.000$ )를 나타내어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증상의 12개 하위유형들과도 모두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스트레스 지각과 우울 증상간에 가장 높은 상관 계수( $r=.66, p=.000$ )를 나타내었다.

여대생의 대처 유형과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를 보면, 문제중심 대처와 스트레스 증상 간에( $r=.58, p=.000$ ), 스트레스 증상과 정서중심 대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 관계( $r=.32, p=.000$ )를 나타내어 대처 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음주 형태로는 92.43%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의 음주율인 95% 보다는 적은 수이나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음주 인구가 급증하는 경향을 반영해 주고 있으며, 20세 이상 성인여성 음주율 55%(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2002)를 상회하고 있다.

젊은 여성의 음주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여대생이 가끔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 사회의 성역할 변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 여성의 의식 변화 등이 여성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여러 연구결과(Huh, Kim & Kim 2001; Kim & Kim 2001)를 지지하고 있다. 음주 동기는 '편안해 지기 위하여'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우'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의 음주동기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고려되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대처 수단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한 Kim(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최초 음주 시기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처음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음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 동기는 호기심, 타인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최초 음주 연령이 계속 저연령화 되어 간다는 여

러 보고와 부합된다(Han & Han, 2001; Korean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 2001). 이러한 결과는 또한 우리나라 성인 음주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음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당량의 음주는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음주 문화의 허용성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고려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는 3.44%가 문제성 음주자로 나타났고, '취기가 오르면 계속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다' '최근에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술이 해로웠다고 느낀다' 등의 문제를 나타내었다. 이는 Kim(2001)이 20대 남녀 음주자의 약 6%가 알콜 중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본 연구대상자가 여대생임을 감안할 때 많은 수의 학생이 음주 관련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평균 2.49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Ha, Han과 Choi(1998)이 보고한 2.55 보다는 낮고, Han, Lee와 Lee(2000)의 연구결과인 일반 중년여성의 2.27, Han(2002)의 연구결과인 만성질환자의 2.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증상 정도는 평균 1.34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만성질환자를 대상(Han, 2002)으로 한 연구 결과인 2.17, 일반간호사를 대상(Cho, 1997)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인 1.25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경우 생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 평가 정도는 민감하여 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높으나 실제 스트레스 증상의 발현 정도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불안정 증상이 평균 1.57로 가장 높았고, 인지적 혼란 증상, 소화가계 증상 순이었다. 이는 여대생의 정상 성장 발달 단계적 특성상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적응과 관련되어 정서적인 불안정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여대생의 음주 관련 문제와 스트레스 지각 정도간에는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문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 관련 문제가 높을수록 정서 중심 대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은 경우 정서중심 대처 유형의 한 형태인 음주 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Kim, 2001)와 유사하며, 이에 따라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고려된다.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습관성 행동 증상, 정서적 불안정의 증상과 음주 관련 문제가 높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문제 음주자의 경우 스트레스에 직면한 경우 다른 대처 수단을 고려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연구 결과들(Choi & Lee, 1997; Kim, 2001) 과 유사하며, 이에 따라 올바른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 중심 대처 행위 이용 정도가 높고,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Ha, Han과 Choi(1998)의 연구결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1997) 의 결과를 포함한 여러 연구결과와 부합된다. 이 같은 결과는 여대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인지 평가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음주 관련 문제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 결 론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형태, 음주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유형 및 스트레스 증상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미래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술적 조사 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나 잘못된 질문지와 누락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총 4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로 음주 형태, Kim 등(1991)이 개발한 음주관련 문제 측정 도구(NAST), Levenstein 등(1993)이 개발한 스트레스 지각 측정 도구, Lazarus와 Folkman (1984)의 대처 유형 도구 및 Kogan(1988)이 개발한 Symptoms of Stress Scale 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A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의 26명(3.44%)이 문제 음주자로 나타났고, 92.43%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평균 2.49 로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정도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대처 행위는 문제 해결 중심의 대처 행위 사용정도가 평균 1.48, 정서 중심 대처 행위가 평균 1.29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증상 정도는 평균 1.34 나타나 중간 보다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불안정 증상이 평균 1.57로 가장 높았고, 인지적 혼란 증상이 1.54, 소화기계 증상이 1.52 순이었다.
-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 수록 음주 관련 문제 정도가 높고( $r=.10$ ,  $p=.031$ ), 음주 관련 문제가 높을 수록 정서 중심 대처 이용 정도가 높고( $r=.13$ ,  $p=.006$ ),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문제가 높아지는 것( $r=.23$ ,  $p=.031$ )으로 나타났다.

-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 중심 대처 행위 이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r=.24$ ,  $p=.000$ ),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r=.60$ ,  $p=.000$ ), 특히 스트레스 지각과 우울 증상 간에 가장 높은 상관 계수( $r=.66$ ,  $p=.000$ )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대생의 음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의 일 유형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고려되며, 여대생의 경우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고, 정서 중심의 대처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 수록 정서중심의 대처를 많이 이용하고,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여대생의 음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 증상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대생을 위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위한 중재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Ahn, H. R., Pai, HJ., & Kim, E.S.(1999).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grees of Drinking of the Aged in the C Cit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8(2), 478-491.
- Cho, K. S. (1997). *A Study on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social support, stress symptoms of Nurs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M. H., & Lee, T. Y. (1997). Stress and Coping Strategy of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3(2), 60-71.
- Ha, N. S., Han, K. S., & Choi, J. (199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tress Respons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8(2), 358-368.
- Han, K. S. (2002). Perceived Stress, Mood State, and Symptoms of Stress of the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J Korean Acad Nurs*, 33(1), 87-94.
- Han, K. S., Lee, P. S., & Lee, Y. M. (2000). Influencing Factors on Symptoms of Stress of Middle Aged Women. *J Korean Acad Nurs*, 30(6), 1427-1436.
- Han, S. H., & Han, D. W. (2001). The Related Factors of Alcohol Drinking in Korean Young Adults.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7(2), 130-143.
- Huh, E. J., Kim, M. S., & Kim K. K. (2001). Drinking Patterns and Alcohol-related Problems in Women. *J Korean Comm Health Nurs Academic Society*, 15(1), 202-215.

- Kim, O. S., & Kim, K. H. (2001). Social Support, Depression, Drinking and Smoking in College and Working Females. *J Korean Acad Adult Nurs*, 13(3), 363-372.
- Kim, Y.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Motives for Drinkin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Public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9, 5-23.
- Kim, K. B., Hahn, K. S., Lee, J. K., Rhee, M. K., Kim, Y. K., & Kim, C. K. (1991). The Preliminary Study of the Korean Alcoholism Screening Test(III).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0(3), 569-581.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2). Statistics of Health Behavior in Korea. Web site. <http://www.kihasa.re.kr/>
- Korean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2001). Alcohol and Influences, Web site. <http://www.kodcar.or.kr/>
- Ko, Y. T. (1995). A Survey on Drinking State and Viewpoint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DukSung Women's University*, 24, 327-337.
- Kogan, N. H., Gaber, A., & Egan, K. (1988). Hypertension self-regulation : Predictors of success in diastolic blood pressure reduction. *Res Nurs Health*, 11, 105-11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 Co.
- Lee, M. H., Lee, Y. J., & Jeong, H. S. (1999). Alcoholic Disorder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8(1), 97-107.
- Lee, P. S., & Han, K. S. (1996). The Comparative Study on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Stress Symptoms of Peptic Ulcer Patients and Healthy Perso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 Nurs*, 5(1), 39-50.
- Lee, P. S., & Han, K. S. (1999). A study of Appraisal, Ways of Coping, Mood State, Symptoms of Stress in Essential Hypertension. *Korean J Stress Res*, 7(2), 31-44.
- Levenstein, C., Prantera, V., Varvo, M., Scribano, E., & Betro, C. (1993).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stress questionnaire : a new tool for psychosomatic research. *J Psychosom Res*, 37(1), 19-32.
- Park, J. S. (200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6(4), 393-413.
- Reiser, M. F. (1984). *Mind, Brain, Body : toward a convergence of psychoanalysis and neurobiology*. NewYork. Basic Books.

## Drinking Pattern, Problem Related Drinking,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ymptoms of Stress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Yang, Seung-Hee<sup>1)</sup> · Han, Kuem Sun<sup>2)</sup>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U College, 2)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problem related drinking,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ymptoms of stress of the college women. **Method:**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436 the College Women in S City. It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 Three point forty -four of the subject had problem-related drinking, 92.43% were experienced alcohol drinking. The level of perceived stress(M=1.48) showed moderate, and symptoms of stress(M=1.34) showed below. The problem-related drinking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stress( $r=.10$ ,  $p=.03$ ), emotion-oriented coping( $r=.13$ ,  $p=.00$ ), and symptoms of stress( $r=.23$ ,  $p=.03$ ). **Conclusion:** Data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ymptoms of stress a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related drinking in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Stress, Cop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an, Kuem Sun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126-1, AnAmDong 5 Ga, SungBukGu, Seoul 136-705, Korea

Tel: +82-2-3290-4919 Fax: +82-2-927-4676 E-mail: hksun@korea.ac.kr